

더 던 매거진

그리스도의 임재를 알리는 전령



새벽 잡지

2026년 5월

목차

특집 기사.....	2
욥의 질문에 대한 답변.....	2
성경 공부.....	25
요나의 잘못된 동정심.....	25
게으름에 대한 경고	29
기독교인의 관대함	33
올바른 안식일 지킴	37
서로 격려하며	41
기독교인의 삶과 교리	45
홍해로 향한 이스라엘의 여정	45

성경과 함께 읽어보세요!

욥의 질문에 대한 답변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 수 있겠는가?”

욥기 14:14

욥이 던진 이 강렬한 질문만큼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끄는 주제는 없습니다. 보통 상황에서는 아무도 죽기를 원하지 않지만, 인류의 예견이 닿는 한 죽음은 모든 인간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나 깨닫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이의 마음속에, 그리고 많은 이의 입에 오르내리는 질문은 바로 사후에 생명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역대 사람들은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위대한 적인 죽음 앞에서 자신들도 결국 무너질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두려움을 달래고 비극적으로도 너무나 현실적인 이 사실을 부정하기 위해 온갖 철학을 고안해 냈습니다. 그들은 죽음이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다르다고, 즉 죽음이 인간이 더 숭고한 삶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수단이며, 어떤 경우에는 영원한 고통의 상태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믿어 왔습니다.

죽은 자들은 어디에 있는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죽은 자들이 산 자들보다 더 살아 있는 것인가? 수천 년 전, 의로운 사람 욥은 서두의 구절에 인용된 말을 물었다.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겠는가?” 여기서 하나님의 선지자는 사랑하는 이를 잃고 슬퍼한 수십억의 사람들을 대변했으며, 그들 자신도 온 인류와 마찬가지로 피할 수 없는 죽음의 도래를 두려워해 왔다.

욥은 자신의 질문에 대한 답에 개인적이면서도 절실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방금 하나님께 “나를 죽게 하소서()”라고 간청했기 때문입니다(욥기 14:13). 욥은 사는 것에 지친 것이 아니라, 고통으로 인해 지쳐서 그런 상황에서 살아가는 것이 과연 가치 있는 일인지 의문을 품게 된 것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욥의 인내에 대하여 들었으리라”고 기록했습니다(야고보서 5:11). 욥에게는 인내가 필요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끔찍한 재앙을 내리셨기 때문이다. 그의 양 떼와 소 떼, 그리고 가족 모두가 멸망했다. 그는 건강을 잃고 온몸을 뒤덮은 역겨운 피부병에 시달리게 되었다. 마침내 그의 아내마저 그를 배신하며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라고 말했다(욥기 2:9).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저주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왜 자신이 그토록 큰 고통을 겪게 되었는지 이해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당연히 그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했기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나를 무덤에 감추시고, 주의 진노가 지나갈 때까지 나를 숨겨 주시며, 정해진 때를 정해 주시고 나를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욥기 14:13

이처럼 하나님께 죽게 해 달라고 간구한 욥은, 만일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죽음을 허락하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서두의 본문 말씀처럼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욥은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바탕으로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의 말은 신적 영감을 받은 것이므로, 우리는 그가 사후 생명에 관한 질문을 그 주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표현했음을 압니다.

욥이 “사람이 죽으면, 그 어느 때보다 더 살아 있게 되는가?”라고 묻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그는 “사람이 죽으면, 그것이 그가

천국에 갔다는 뜻인가, 아니면 고통의 장소로 갔다는 뜻인가?”라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욥은 사람이 죽으면 죽은 것임을 (확실히) 알고 있었으므로, 그가 던진 질문은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인가?”였습니다. 이로써 사후의 삶은 죽은 자의 부활에 달려 있다는 성경의 위대한 근본 진리가 우리 앞에 드러납니다. 사후의 삶에 대한 희망이 있는 것은 죽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강력한 능력을 사용하여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욥은 더 이상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죽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정해진 날들을 다 기다리니,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변화가 올 때까지. 주께서 부르시면 내가 응답하리니, 주께서는 주께서 지으신 일을 기뻐하시리라.” 욥기 14:14,15

부활의 소망

욥이 가졌던 바로 이 부활의 소망이 신약성경에 그토록 명확하고 위로가 되는 확신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으니, 또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이 왔느니라”라고 기록했습니다(고린도전서 15:21). 이 본문에서, 완전한 “사람” 아담은 신성한 율법을

어기고 자신과 그의 후손에게 죽음의 형벌을 초래했습니다.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은 죄인의 자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부활을 통해 아담의 후손들이 죽음에서 해방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이라”고 기록했을 때 의미한 바입니다. 로마서 6:23

왜 혼란이 생기는가?

사후 세계에 대한 많은 혼란의 근원은 에덴 동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17). 그 후 사탄은 뱀을 통해 이브에게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브는 불순종할 경우 죽음이 벌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까지 포함하여 그분의 말씀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창세기 3:1-3

그러자 사탄이 하와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다(창세기 3:4). 이는 창조주가 하신 말씀을 노골적으로 부인한 것이었다. 사실상 사탄은 불순종의 대가가 죽음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이라고 비난한 셈이었다.

아마도 사탄은 어떤 방식으로든 인간에게 사형을 내리려는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킬 수 있다고 믿었을지도 모른다. 만약 그렇다면, 그는 곧 그러한 노력이 헛된 것임을 깨달았으니, 인류가 죽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탄은 자신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인간을 도구로 삼아, 죽음이 겉보이는 것과 다르며, 죽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짓말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그가 사람들을 이 말을 믿게 할 수 있는 한, 그는 이브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을 때 진실을 말했음을 증명하게 될 것이었다. 너희는 단지 죽은 것처럼 보일 뿐이며, 죽은 것처럼 보일 때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더 살아 있게 될 것이라고 말이다.

예수님은 사탄에 대해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44). 다시 말해, 사탄은 최초의 거짓말을 낳았으며, 그것은 역사상 가장 파괴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 거짓말이었다. 에덴 동산에서 비롯된 이 허위는 모든 민족과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죽음에 대한 진리를 타락시켰으며, 반면 “너희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된 진리는 비교적 소수만이 믿어 왔다.

“별개의 존재”라는 거짓

인간의 육체가 죽어 흠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은 누구에게나 명백한 일이었다. 사탄은 이 점에 관해서는 사람들을 속일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그는 인간의 유기체 안에 육체와 분리된 무언가가 있으며, 그것이 죽을 때 육체를 벗어나 계속 살아간다는 개념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자칭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이 정의할 수 없는 무언가를 “불멸의 영혼”이라고 부른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러한 견해를 고수했다. 이는 나중에 그리스와 로마의 철학자들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사도들이 잠들고 난 후, 이 사상은 이교도 철학자들에 의해 기독교 교회에 유입되었다. 다양한 방식으로 묘사되기는 했지만, 사람 안에 죽을 수 없는 무언가가 존재하므로 죽음은 없다는 이 이론은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종교인들의 공통된 믿음이었다.

성경은 솔로몬 왕 시대에도 이러한 생각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음을 보여주며, 우리는 그가 진리로 이 오류를 반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다. “사람의 아들들에게 닥치는 일이 짐승에게도 닥치나니, 그들에게 닥치는 일은 하나뿐이라. 이쪽이 죽으면 저쪽도 죽고, 참으로 그들은 모두 한 숨을 쉬나니, 사람이 짐승보다 더 나은 것이 없도다. 모든 것이 헛되니라. “모든 것이 한 곳으로 가나니, 다 흠에서 나왔고 다 다시 흠으로 돌아가느니라. 사람의 영이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이 땅으로 내려가는 것을 누가 알겠느냐?” 전도서 3:19-21

솔로몬은 죽음 앞에서 사람과 짐승이 같으며, 그들이 모두 한 숨, 즉 전도서 3:21에서 같은 히브리어 단어가 번역된 대로 “영”을 공유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얼마나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가. 이렇게 진리를 제시한 후, 그는 “누가 알겠는가[반대할 수 있겠는가]?”라고 묻는다. 그는 주변 이방 나라들이 ‘죽음은 없다’는 사탄의 거짓말을 믿고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즉, 육체는 죽지만 ‘영’은 ‘위로’ 올라가 계속 산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것이 사실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는 오히려 죽음에 있어 사람과 짐승은 같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우월성은 하나님께서 죽은 인간을 부활을 통해 다시

살리겠다고 약속하셨으나, 하등 동물에 대해서는 그러한 약속을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불멸의 영혼”은 성경적이지 않다

“불멸의 영혼”이라는 표현은 성경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으며, 성경은 육체가 죽을 때 인간 몸 안에 별개의 존재가 거하다가 다른 곳으로 도망쳐 살아간다는 것을 조금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영혼”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곳은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사람이 영혼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 않고, 사람이 “살아 있는 영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살아 있는 영”이란 단순히 살아 있는 존재, 즉 생명체로, 이 본문에서 드러나듯이 생명의 숨결이 유기체, 즉 육체와 결합하여 생겨난 결과물입니다. 육체는 영이 아닙니다. 생명의 숨결도 영이 아닙니다. 신성한 능력을 통해 그 숨결이 육체에 생명을 불어넣을 때, 이 둘의 결합이 “살아 있는 영”을 만들어 냅니다.

솔로몬은 사람과 짐승이 모두 같은 숨을 쉰다고 말했는데, 그의 말이 옳았습니다. 대홍수로 멸망한 인간과 하등 동물에 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읽습니다.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육체, 곧 새와 가축과 짐승과 땅 위를 기어 다니는 모든 기어 다니는 것과 모든 사람이 죽었으니, 코에 생명의 숨이 있는 모든 것, 곧 마른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죽었더라.” 창세기 7:21,22

동물들도 사람이 살 수 있게 하는 바로 그 “생명의 숨”을 통해 살아가므로, 동물들 또한 “살아 있는 영혼”이다. 번역상의 불일치로 인해, 성경을 대충 읽는 독자들은 이 중요한 진리를 간과하기 쉽다. 예를 들어, 창세기 1장 2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이 그 종류대로 살아 있는 생물을 내라 하매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이 그 종류대로 나니 그대로 되니라.” 이 본문에서 “생물”이라는 표현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아담을 가리킬 때 “살 있는 영”으로 번역된 것과 정확히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를 번역한 것이다. “생물”과 “영”이라는 단어는 모두 히브리어 “네페쉬(nephesh)”를 번역한 것이다. 번역자들은 성경이 근거로 삼지 않는 인간과 동물 간의 차이를 확립하고자 노력했기 때문에, 하등 동물을 지칭할

때는 “생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인간을 지칭할 때는 “영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솔로몬이 “한 쪽이 죽으면 다른 쪽도 죽는다”라고 기록한 것도 당연합니다.

올바른 생각은 솔로몬이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그는 사람이 죽을 때 일어나는 일을 묘사하며 “그러면 티끌은 본래 있던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고 기록했습니다. (전도서 12:7). 이 본문에 제시된 단순한 진리는 “*영(spirit)*”이라는 단어에 대한 한 오해로 인해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서 혼란스러워지고 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 “*루아흐(ruach)*”를 번역한 것으로, 단순히 “숨”을 의미하거나, 이 경우처럼 보이지 않는 생명의 힘을 뜻한다.

이 본문은 사람이 죽을 때 의식 있는 존재가 몸에서 빠져나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것을 조금도 암시하지 않습니다. 위 본문에서 사용된 “*돌아간다*”는 말은 그러한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합니다. 육체는 흙에서 나왔으므로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별개의 존재라면, 그것은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다가 일시적으로 지상에 내려와 인간의

육체를 차지하도록 허락받았다는 뜻이 됩니다.
얼마나 터무니없는 결론입니까!

그러나 솔로몬이 내린 죽음에 대한 정의는, 인간의 살아 있는 영혼 또는 존재에 관해 성경에 명시된 사실들과 얼마나 일치하는가? 육체와 숨이 각각의 근원으로 돌아갈 때, 살아 있는 영혼, 즉 존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죽은 것이며, 죽음은 죄에 대한 형벌이다. 에스겔 18장 4절은 간결하게 이렇게 선언한다. “죄를 범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잠”으로 표현된 죽음

하나님께서 죽은 인간을 다시 살리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죽은 자들을 잠든 자라고 표현한다. 이 중요한 성경의 진리는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형제인 나사로의 죽음을 언급하실 때 강조된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우리 친구 나сар가 잠들었다”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연적인 잠을 말씀하시는 줄로 생각하자,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요한복음 11:11-14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기본 교리 중 하나를 제시하셨습니다. 나사로는 죽었으나, 동시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불순종이 죽음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생명의 소멸을 가리키셨습니다. 이 생명의 소멸은 영구적이었을 것이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인간 피조물을 사랑하시고, 인류의 구속자이자 죽음으로부터의 구세주가 되실 사랑하는 아들을 선물로 주심으로써 그들에게 구속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16, 17; 디모데전서 2:3-6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한 랜섬[그리스어: 상응하는 대가]”이자 “세상의 생명”으로서 자신의 “육체”, 즉 인성을 내어주셨습니다(요한복음 6:51). 완전한 사람인 아담의 불순종은 그의 모든 후손에게 죄와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아담에게 내린 불순종과 사형 선고로 상쇄하기 위해 “생명은 생명으로” 즉, 완전한 사람 예수님의 죽음을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아담을 위한 “랜섬”, 즉 상응하는 대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되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출애굽기 21:23; 로마서 5:12-19; 히브리서 2:9). 이처럼 아담과 그의 후손에게 선고된 형벌, 즉 사형 선고를 치를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습니다. 비록 모든 사람이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마련된 구속 덕분에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들의 일시적인 생명의 부재를 묘사하기 위해 “잠”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잠든 자들은 외부 세계를 의식하지 못하며, 죽은 자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한다. 성경은 “살아 있는 자는 자기가 죽을 줄을 알거니와 죽은 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느니라.”(전도서 9:5)라고 말한다. 잠든 자들은 깨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죽음 속에서 “잠든” 자들도 깨어날 수 있으며, 반드시 깨어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에 대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가서 그를 잠에서 깨우리라.” (요한복음 11:11). 죽음 속에서 잠든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구의 새로운 날이 밝아올 때 깨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밤에는 울음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시편 30:5)라는 말씀을 읽게 됩니다.

마르다를 위로하시다

예수님과 벳다니아의 작은 가족—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는 특별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벳다니아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두 자매는 나사로의 병에

대해 예수님께 소식을 전했지만, 예수님은 즉시 그들에게 가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틀을 기다리셨습니다. 그 후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잠들었다고 말씀하시며, “그를 잠에서 깨우러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1-15

마르다는 예수님이 집으로 다가오시자 나가서 맞이했다. 그녀는 예수님을 부드럽게 타박하며 말했다. “주님,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요한복음 11:21). 마르다는 가슴이 찢어질 듯 슬퍼했고, 이는 예수님께서 그녀를 위로해 주실 절호의 기회였으며, 예수님은 실제로 그렇게 하셨다. 큰 고통 속에 있던 마르다에게 주님은 어떤 위로의 말씀을 해 주셨을까? 예수님께서 비슷한 상황에서 흔히 말해지던 것처럼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네 오빠는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 단지 겉껍질인 육신을 벗어던진 것뿐이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진짜 나사로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살아 있다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나사로의 “영혼”이 근처에 맴돌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하셨을까? “마르다야, 죽음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은 이런 말들을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이전에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죽었다”고 말씀하셨고, 이제 와서 마르다에게 그녀의 오빠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살아 있다고 말함으로써 이 진리를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위로하기 위해 하신 말씀은 온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하는 바와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사로가 실제로 죽었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23

마르다는 이 말씀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죽음의 잠에서 깨우신 것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께 “주님께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라고 말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때 바로 하나님께 그녀의 오빠를 죽음의 잠에서 깨워 달라고 기도하실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날 줄은 저도 압니다.” 요한복음 11:22,24

마르다는 모든 죽은 자의 대부활이 있을 것이며, 그때 라자로가 죽음의 잠에서 깨어날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녀는 구약성경에 기록된 약속들을 잘 알고

있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경건하고 믿음으로 귀를 기울였기에, 온 인류를 위한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 또한 마르다는 그 대부활이 “마지막 날”에 일어날 것임을 이해하고 있었다. 마지막 날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종말의 날”이 아닙니다. 이 구절에서 “날”이라는 단어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인류를 구속하고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서 한 기간, 즉 시기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그리스도의 첫 번째 강림 이후로 다양한 시기, 즉 시대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펼쳐질 신성한 계획의 마지막 시기, 곧 하나님의 의로운 왕국 시대에 예수님과 협력할 자들을 선별하고 준비시키신 예비의 시대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3:5; 마태복음 6:10). 그때가 되어서야 하나님의 계획은 죽은 자들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왕국 법도를 믿고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생명이 온전하게 회복됨으로써 완성에 이를 것이다.

마르다는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이 마지막 시대, 즉 마지막 날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그때 그녀의 오빠와 죽은 모든 사람이 죽음의 잠에서 깨어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예수께서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것이 예수께서 뜻하신 바인지 알지 못했고, 예수께서도 자신의 당면한 의도가 무엇인지 그녀에게 직접 설명해 주지 않으셨다. 대신 예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25, 26). 예수님은 자신을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밝히심으로써, 마지막 날에 모든 죽은 자를 깨우실 분이 바로 자신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왕국 시대에, 하나님의 원칙에 순종하게 될 모든 사람과, 그때에 진심으로 그분을 믿게 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부활을 통해 인류가 깨어날 것임을 마르다에게 확신시켜 주신 후, 그녀에게 “이 말을 믿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마르다는 “주님, 저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요한복음 11:26, 27). 마르다는 약속된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인류를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보내질 것이며, 이것이 죽음 속에서 잠든 모든 자들의 부활을 통해 이루어질 것임을 올바르게 이해했다. 그녀는 예수 안에 “부활이요 생명”이 있다고 믿었다.

나사로의 부활

마르다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을 고백한 후, 집으로 돌아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만나러 함께 가자고 청했고, 마리아는 그렇게 했다. 예수님은 이 슬픔과 큰 상실의 광경에 마음이 움직이시어, 다른 이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셨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묻힌 무덤을 보여 달라고 요청하셨다. 요한복음 11:28-35

무덤 앞에 서서 예수님은 입구 앞에 놓인 돌을 치워 달라고 요청하셨다. 그러자 마르다가 반대했다. 그녀는 이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오빠를 다시 살리실 수 있다는 믿음을 고백했었지만, 이제는 의구심이 들어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이미 사흘이나 지났으니 시체가 썩어 냄새가 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39). 예수님께는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통해, 죽은 모든 사람을 위해 신성한 능력으로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일을 보여 주려 하셨던 것이다. 신성한 능력이 역사하는 곳에서는 사람이 사흘 동안 죽어 있었던 수천 년 동안 죽어 있었던 아무런 차이가 없다. 생명은 되살아날 수 있다. 애초에 하나님의 도구로서 생명을 창조하신 분은 생명을 되살리실 능력이 넘치시는 분이시다.

열린 무덤 앞에 서서 적절한 기도를 드린 후, 예수님은 큰 소리로 외치셨다. “나사로야, 나오라.” (요한복음 11:43). 이 기록이 언급하지 않은 점을 주목하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이 기록은 나사로가 천국에 갔다 돌아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사로는 천국에 가지 않았습니니다. 또한 그가 영원한 고문()의 심연에 갔다 그 고통에서 풀려났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고문의 심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외치셨을 때, “죽었던 자”가 나왔습니다. “죽었던 자”인 나사로는 죽음의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무덤의 수의에서 풀려난 나사로는 예전처럼 가족과 친구들과 어울리며 다시 만났습니다. 생명을 되찾은 그는 유령도, 망령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전과 똑같은 나사로였습니다. 그는 다시 살아난 것을 기뻐했고, 그의 가족은 그가 돌아온 것을 기뻐했습니다.

“놀라지 말라”

이전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놀라지 말라. 무덤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나니, 선을 행한 자는 생명으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으로 부활하리라.” (요한복음 5:28, 29). 여기서 우리는 나사로가 무덤에서 불러내어졌듯이, 모든 죽은 자들도 일반 부활의 때에 불러내어질 것임을 확신하게 된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부활에 있어 두 가지 일반적인 부류를 언급하신다는 점을 주목합니다. 곧 선을 행한 자들과 악을 행하거나 선을 행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선을 행한 자들은 24절에서 현 시대의 “믿는 자들”로 지칭됩니다. 이들은 현세에서 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했기 때문에 장차 심판에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발자취를 충실히 따름으로써 “선한 일”을 행한 이들은, 죽음에서 깨어나 “생명”의 영원한 부활()에 참여할 자격이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자격을 입증하지 못한 자들은 죽음에서 깨어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는 그들의 깨어남이 세상의 천년 심판의 날 동안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7:31; 베드로후서 3:8; 요한계시록 20:6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심판”으로 번역된 그리스어 단어는 “크리시스(krisis)”입니다. 지금 생명에 합당함을 입증하지 못한 모든 사람은 죽음의 잠에서 깨어날 때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때

그들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완전히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완전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마련된 생명의 선물을 받아들이고, 그때쯤이면 온 인류의 일을 주관하게 될 그분의 의로운 왕국의 법에 순종할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만약 그들이 이를 받아들이고 순종한다면, 그들은 인간 생명의 완전함으로 회복되어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완전한 부활이 될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받아들이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다시 죽음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때에 대해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백성 중에서 “완전히 끊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3:23

현재 시대의 신자들 중,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통치할 자격이 입증된 자들은 부활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얻게 될 것이다. (로마서 2:7). 따라서 불멸은 인간의 타고난 속성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해 기꺼이 그분과 함께 고난받고 죽으려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상임. 예수님의 왕국에서 그분과 함께 상속자가 되는 이들은, 심판 기간 동안 그분과 함께 심판관으로도 섬길 것이다. 고린도전서 6:2; 요한계시록 3:21; 5:10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행복한 완결을 맞이하는 것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 초래된 죄와 죽음의 통치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긴 슬픔의 기간 동안 죽은 모든 사람은 깨어나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땅 위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개별적인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소망이며, 하나님의 선지자 다윗은 이를 상징적이고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인용합니다. “열방 가운데서 말하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세상은 견고히 세워졌으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가 공의로 만민을 심판하시리라. 하늘이 기뻐하고 땅이 즐거워하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울려 퍼지게 하라. 들판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기뻐하며, 숲의 모든 나무가 즐거워 노래하리라. ... 그가 땅을 심판하러 오시니, 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신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시편 96:10-13). 참으로 사후의 생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성한 능력으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제시된 위대한 희망입니다.

요나의 잘못된 동정심

핵심 구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심지도
않았고 기르지도 않은 이 식물을 걱정하였거니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나 하룻밤 사이에 죽었거늘, 내가
이 큰 니스웨 성을 걱정하지 아니하겠느냐?

요나 4:10,11

선별된 성경 구절:

요나 3:1-5; 4:1-11

니스웨는 이스라엘의 원수 중 하나인 앓수르 제국의 수도였다(열왕기하 19:36).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요나에게 니스웨 사람들에게 그들의 악함 때문에 40일 후에 그들을 멸망시키겠다고 선포하라고 명하셨다. 요나의 선포를 들은 왕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모두 “하나님께 힘써 부르짖으라”는 칙령을 내렸다. 그러자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니,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위협하셨던 멸망을 내리지 않으셨다.” 요나 1:2; 3:1-10

그러나 “요나는 이를 심히 싫어하여 크게 분노하였다.” 요나가 하나님께 말하였다. “주님께서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시고 인자하심이 크시며,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 제 목숨을 거두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저에게 더 낫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은가?” 요나 4:1-4

아마도 요나는 아시리아인들이 수 세대에 걸쳐 자기 백성을 잔혹하게 대했던 일을 떠올렸을지 모른다. 그는 심판이 집행되어 그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간절히 바랐을지도 모른다(이사야 36장). 크게 실망한 선지자는 그 도시를 떠났다. 그는 “그 도시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려고” 근처 언덕에 앉아, 자신이 만든 그늘막 아래에 자리를 잡았다. 요나 4:5

그때 “하나님이 박을 준비하사... 요나에게 그늘이 되게 하셨고”, 선지자는 “매우 기뻐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하나님께서 또한 준비하신 벌레가 그 박을 망가뜨렸다. 해가 뜰 때, 해가 “요나의 머리를 내리찍니, 그가... 속으로 죽기를 원했다.” 요나 4:6-8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박나무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이 네게 싫은가?” “네가 수고하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은, 하룻밤에 자라 하룻밤에 시든 박나무를 불쌍히 여겼거늘, 내가 니느웨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요나 4:9-11). “하룻밤의 자식”이라는 표현은 “일시적인” 성격을 지닌 것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식물에 대한 요나의 관심과 연민과 니느웨 백성에 대한 그것 사이의 큰 대조를 지적하고 계셨습니다.

요나는 아시리아인들이 과거에 저지른 잘못에 대해 복수하고 싶어 했기에,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는 사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삶과 행실을 변화시킨 것을 보셨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주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요나서에 기록된 이 이야기의 진실성과 니네베 사람들이 진정으로 회개했음을 확인하셨습니다(누가복음 11:29-32). 이 구절의 31절과 32절은 니느웨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죽은 자들이 장차 지상에 세워질 왕국 시대에 부활할 것임을 증명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첫 번째 강림 당시 그분을 비난하고 박해했던 자들에 대한 심판은,

예수님의 설교와 기적을 보거나 듣지 못한 자들에게
내려질 심판보다 더 가혹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 우리가 받은 지식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48

게으름에 대한 경고

핵심 구절: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 주었으니, 너희가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도와야 하며, 주 예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사도행전 20:35

선별된 성경 구절:

사도행전 20:33-35; 데살로니가후서 3:6-12

사도 바울은 세 번째 선교 여행이 끝날 무렵 항구 도시인 밀레토스에 도착했습니다. 배가 출항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그는 인근 도시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연락을 보내 그들과 만나러 올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그들을 마지막으로 보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장로들이 도착하자 바울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온종일 어떻게 살았는지, 온유함과 눈물과 시련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며 살았는지”를 이야기했다. 그는 “나는 결코 주저하지 않고... 공개적으로나 너희 집안에서 너희를 가르치며,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와 우리 주 예수님을 믿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고 말했다. 사도행전 20:18-21

바울은 장로들에게 “너희 자신과 온 양 떼를 잘 돌보라”고 권면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목자처럼 돌보라”고 당부했습니다. (사도행전 20:28). 여기서 바울은 장로들이 자신들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을 부목자로 세우신 형제들에 대해서도 이중의 책임을 지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주의하라”는 것은, 즉 경계하고 너희가 행하는 일뿐만 아니라 너희의 동기도 살피라는 뜻입니다.

그 후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상기시켰습니다. “나는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도 탐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내 두 손으로 내 자신의 필요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충당해 왔습니다.” (사도행전 20:33, 34). 바울은 본업이 “천막 만드는 일”이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동안 자신의 생계를 꾸리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는 “여러분 중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 함”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3, 데살로니가전서 2:9; 데살로니가후서 3:8; 고린도전서 4:12

다른 번역본의 핵심 구절을 인용하며, 바울은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으니, 내가 일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약한 자들을 도와야 하며, 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비록 줄 돈이 없더라도 우리 각자에게는 다른 이들에게 관대하게 대할 기회가 넘쳐납니다. 위로와 격려의 말, 혹은 그저 다정한 눈빛 하나만으로도, 낙심한 사람에게는 때로 한 줌의 금보다 더 큰 가치가 되곤 합니다.

“나누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자기 자신보다 타인과 그들의 필요를 더 많이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으름”은 나누는 사람의 반대이며, 영적 약함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기심의 한 형태입니다. (디모데전서 5:13). 바울은 게으름을 피우는 형제들을 향해 담대히 말하며,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선언하고, “조용히 일하여 자기 빵을 먹으라”고 권면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7-12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마음으로” 타인에게 베푸는 기술을 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5:2;

고린도후서 9:7).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더 닮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 이는 온 세상이 그를 통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야고보서 1:17; 요한복음 3:16,17

기독교인의 관대함

핵심 구절: “너희가 밭에서 추수할 때, 단을 하나 남겨 두더라도 되돌아가서 그것을 주워 오지 말라. 그것을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 두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신명기 24:19

선별된 성경 구절:

신명기 24:14-22

신명기에는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마지막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메시지의 목적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들의 민족에게 주신 지침을 기억하고 실천하도록 권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지침 중 하나가 오늘의 핵심 구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명령에 대한 설명은 바로 앞 구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너희는 이집트에서 종이었던 것을 기억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거기서 구원해 내셨으므로, 이 규례를 지켜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이같이 명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신명기 24:18

이스라엘 백성은 무력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외면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밭에 남겨진 것을 그들이 스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줍게 해야 했습니다. 이 지침의 이유는 그들도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을 때 무력하고 궁핍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얻는 교훈은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닮은 모습의 한 측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도 이 원칙을 적용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분은 가난하고 무력한 인류를 배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인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고의로 어겼을 때, 내려진 형벌은 죽음이었고, 이는 그 후로 이어지는 모든 세대의 인간에게 대물림되었습니다(창세기 2:16, 17).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서 불완전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도 “어떠한 방법으로든 자기 형제를 속량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 그를 위한 랜섬을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시편 49:7; 51:5).

오직 죄가 없고 완전한 인간의 삶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즉, 아담이라는 완전한 인간의 불순종에 대한 대가로, 예수라는

완전한 인간의 삶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1:23; 로마서 5:12, 19).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인간으로 세상에 보내시어, 그분이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모든 사람을 위한 랜섬”으로 내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게 하심으로써 인류의 모든 구성원을 구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16,17; 디모데전서 2:5,6; 베드로전서 3:18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신 것처럼, 그분은 또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들을 죄와 죽음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요한복음 8:35, 36; 고린도전서 15:22).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하며,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거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때로는 종교와는 전혀 무관하지만, 질병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과 같은 힘든 삶의 경험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로마서 8:22).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명령에 나오는 “이방인, 고아, 과부”와 같이 여겨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믿을

기회가 없었을 수도 있고, 그들의 마음이 그 말씀에 대해 눈멀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사랑과 동정심을 가져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그들에게 진리의 “씨앗”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한 부활에 대한 믿음과 곧 온 땅에 임할 놀라운 왕국의 축복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그들에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21, 22; 요한계시록 21:1-5). 그들은 지금 이 좋은 소식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우리가 심은 진리와 희망의 씨앗이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그들의 마음속에 싹트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올바른 안식일 지킴

핵심 구절: “그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마가복음 2:27,28

선별된 성경 구절:

마가복음 2:23-28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네 번째 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 그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출애굽기 20:8-11).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의 의미를 설명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 대대로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나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출애굽기 31:13,14

하나님께서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이 계명의 더 깊은 의미를 밝히시며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너희가 안식일을 기쁨이라 하고 여호와의 거룩한 날을 존귀한 날이라 하며, 너희의 길을 가지 않고

너희의 욕심을 좇지 않으며 헛된 말을 하지 않음으로 그것을 존중하면, 너희는 여호와를 기뻐하게 될 것이다.” 이사야 58:13,14

매주 이 하루의 안식일의 목적은 단순히 육체적인 휴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설명된 바와 같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쁨으로 그분을 공경하는 날이 되도록 의도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나 사도들은 교회에 안식일에 관한 계명을 주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쓴 대로, “너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느니라.” 로마서 6:14,15

그러나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당시, 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형식주의자가 되어 계명의 깊은 의미보다 문자적인 규정에 더 큰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 교훈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곡식 밭을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 손에 닿은 곡식 몇 알을 비벼 먹었다는 이유로 안식일을 어겼다고 비난했습니다. 누가복음 6:1,2

예수님은 안식일 계명을 어기지도 않으셨고, 다른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유대인이셨기에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계명을 터무니없이 잘못 해석하는 것에 반대하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이 교훈에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안식일”이라는 단어는 안식을 의미합니다. 다른 곳에서 바울은 “믿는 우리는 안식에 들어갑니다”라고 기록했습니다(히브리서 4:3). 이는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의 안식이지, 유대인들의 문자적인 육체적 안식이 아닙니다. 사도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마치신 것처럼 자기의 일도 마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쓰자. 누구든지 믿지 않는 자들의 본을 따라 넘어지지 않도록 하라.” 히브리서 4:9-11

처음에는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수고한다”는 말이 모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권면에는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 안식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과 그분께 대한 의존을 키우기 위해 매일 노력함으로써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는 지식과 확신, 그리고 순종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온전한 신뢰의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맺은 관계 덕분에, 우리는 이 안식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안식은 하나님과 그분의 모든 약속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비례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들에게 있어 매일은 안식일, 즉 쉼의 날이 되어야 하며, 이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서 주님을 기뻐하며 생각하고 경배한다는 추가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서로 격려하며

핵심 구절: “우리가 서로 사랑과 선한 일을
격려하도록 서로를 돌아봅시다.”

히브리서 10:24

선별된 성경 구절:

히브리서 10:22-25

보통 “격려하다”라는 단어는 분노나 악의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묘사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사도는 이 단어를 선한 일을 하도록 독려하고, 사랑과 선한 행실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묘사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 구절의 또 다른 번역은 “서로 동기를 부여하다”입니다.

서로 사랑과 선한 행실, 즉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주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일 때의 진정한 목표이자 목적입니다. 우리 모두는 같은 귀한 믿음을 가진 이들과의 교제에서 오는 도움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사도는 또한 “그 날이 가까워지는 것을

볼 때” 형제들과의 교제가 점점 더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10:25

서로 사랑과 선한 일을 향해 올바르게 격려하기 위해, 사도는 우리가 먼저 “서로 돌보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우리가 타인의 시련과 어려움, 약점을 고려하여 그들에 대한 마음의 동정을 키워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랑과 선한 일을 위해 “서로 격려하라”는 이 권면에는 아름다운 영적 균형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선한 일을 향한 열정은 서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선한 행실로 드러나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사랑에서 비롯되거나 그 표현이 아닌 행실은 주님의 눈에는 선한 행실로 여겨질 수 없습니다.

선한 행실은 사도 바울에 의해 다른 곳에서 “사랑의 수고”라고 묘사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3). 이는 참된 사랑이 “수고”하거나 일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한 사랑은 단지 친절한 성품에 그치는 것이 아니며, 사랑의 행위가 전혀 없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데 충분하다고 여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 삶을 채우고 지배해야 할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즉 타락한

인류에 대한 태도에서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소유하시고 본보기를 보이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분께서 주실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르신, 곧 독생자이시며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16).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참된 사랑과 선한 행실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본을 봅니다. 물론 우리는 구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다 행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도록 우리를 이끄는 그 정신을 기르기 위해 노력할 수는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교제”로 번역된 그리스어 “*코이노니아(koinonia)*”는 “동역”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2:9; 빌립보서 1:5; 요한일서 1:6,7). 기독교적 교제는 단순히 함께 모여 공통된 신앙을 논의하는 것 이상입니다. 서로 만나고자 하는 소망은, 죄로 저주받은 인류의 세상을 깨우치고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안에서 그분과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깨달음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17-21; 6:1

바울은 우리가 참여하도록 초청받은 사역을 강조하며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의 말씀을 맡기셨으니,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고린도후서 5:19,20). 이는 우리가 죽기까지 신실하다면, 우리 머리가신 그리스도와 함께 잃어버린 인류를 하나님께로 화해시키는 위대한 사역에 동참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가 동참하는 공동의 사역입니다. 이 대의와 관련하여 서로를 신실함으로 “격려”하거나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우리가 모일 때의 주요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홍해로 향한 이스라엘의 여정

“이 모든 일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 함이요, 또 세상의 끝이 우리에게 임한 자들을 위해 기록된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0:11

이집트의 장자들이 죽고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살아남은 후,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출애굽기 12:29-32). 사건이 많았던 유월절 밤이 지난 다음 날 아침, 그들은 라메세스에 모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창세기 15:18-21; 출애굽기 3:8).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난 일들이 우리의 교훈을 위한 본보기가 되거나 “예표”로 기록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고대 백성들을 대하신 방식에서 교훈을 얻어, 그들이 저지른 실수를 피하고 그들보다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정을 시작한 람세스는 이 노예 백성이 파라오를 위해 지은 “보물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출애굽기 1:11; 12:37). 람세스는 또한 그들을 압제했던 파라오의 칭호이기도 했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한 도시로서 이보다 더 적절한 이름은 없을 것입니다. 이집트인들은 태양 숭배자들이었다. 그들의 태양신은 ‘라(Ra)’였다. 이 파라오가 스스로 ‘라메세스(Rameses)’라는 칭호를 취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 이름은 ‘태양의 아들’을 의미한다. 그러나 진리의 관점에서 볼 때, 라메세스는 실제로 이집트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빛을 준 자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노예로 삼아 그들이 구원을 간절히 부르짖게 만든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23-25; 3:7-10

이 점에 있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즉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로마서 8:14; 히브리서 3:5,6; 베드로전서 2:5,9,10)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흥미로운 유사점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말하자면 우리를 압제하는 파라오가 있습니다. 그는 사탄이며,

원래 이름은 ‘빛을 지닌 자’라는 뜻의 루시퍼였습니다. 옛날의 파라오와 마찬가지로, 그는 참된 빛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양한 기만적인 수단을 통해 “빛의 천사”로 위장해 왔습니다. (고린도후서 11:14). 사탄의 지휘 아래,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백성들이 보물 도시들—즉, 참된 하나님의 도시인 척 위장한 거대한 교회 체제들—을 세우도록 이끌려 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집트가 단순히 거대한 교회 체제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며, 그들의 보물 도시들이 이집트 전체를 구성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집트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모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는 노예로 살았던 세상, 즉 어둠과 죽음의 왕국을 상징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로마서 8:21-23; 갈라디아서 4:1-7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구원에 대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이집트에서의 구원은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졌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더 위대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구속을 이루신다. (요한복음 1:29; 고린도전서 5:7). 이 점에 있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린 것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냈지만,

그것이 반드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유념하는 것이 좋다.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으나, 우리가 마침내 하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부르심의 조건에 대한 지속적인 신실함이 필요하다.

유월절의 피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속적인 믿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최종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보증이었다. 문설주와 문설주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이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께 그들의 순종의 표현으로 여겨졌다. (출애굽기 12:22,23). 이 같은 수준의 믿음을 계속해서 실천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 그들의 불순종의 표징으로 여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단지 흠으로 지어진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오랫동안 그들을 참아 주셨습니다. (시편 103:14; 로마서 11장). 그러나 그들이 계속해서 의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탓에,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들과의 인내를 거두셨습니다. 신실함과 순종을 지속하지 못한 이 실패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집트로 되돌려 보내신 것이 아니라 광야로 돌려보내 죽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14:22,23). 바울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었다고 말한 본문 첫 구절의 말씀을 잘 기억합니다. 그들의 불신과 불순종의 본보기가 우리에게 경계가 되어, 우리가 더 신실하게 행하고 우리가 부름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1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거나,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평범하고 흔한 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점점 더 커지는 감사와 믿음의 증거를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돌보실 것이라고 당연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는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통해 나타납니다. 사도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히브리서 11:6)고 말씀하신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바로 이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축복”을 그분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하고 그분과 그분의 사역을 향한 열정을 키우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실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1:3

“영원한 도시는 없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으로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시는 구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들은 라메세스에서 모였고, 거기서부터 수컷으로 여정을 떠났습니다. (민수기 33:5). 수컷이라는 이름은 “초막”을 의미하며,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들의 여정이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과 자유를 주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집트에 있는 그들의 집이 의심할 여지 없이 제공해 주었던 많은 편의와 필수품들을 스스로 포기하라는 부르심이었음을 잘 상기시켜 줍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집과 지붕이 주는 보호를 누릴 수 없게 되었다. 그때부터 그들은 약속의 땅에 도달할 때까지 천막에서 살아야 했다. 여기에는 영적 안식의 천국 가나안()을 향해 순례의 여정을 시작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 그들이 현재 여행하는 동안 길의 고난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줄 “영원한 성읍”은 있을 수 없다. (히브리서 13:14).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영적 자녀로서, 영적인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는 보호를 위해 물질적인 것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임시적이고 겸손한 거처에 머물며, 그분께서 즐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121:3,4). 모든 필요의 때에 주시는 은혜와 보호에 대한 그분의 귀한 약속은,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를 압도했을 폭풍과 불같은 시련과 우리 사이에 축복의 장막을 치어 주십니다. 히브리서 4:16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구름의 그늘 아래서 여행했습니다. (출애굽기 13:21,22). 이는 우리를 둘러싼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함을 상기시켜 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8:14-17, 28). 이 은혜는 결코 방해받거나 저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세속적인 구름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분의 은혜와 사랑의 덮개를 우러러보며, 그로 인해 그분의 자비와 돌보심을 점점 더 깊이 깨닫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가 항상 삶의 즐거운 경험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련과 고난 또한 그분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능력의 권세 안에서” 강해지기 위해 이러한 경험들도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6:10

같은 종류의 두 식물을 예로 들어 보십시오. 하나는 빛과 신선한 공기가 차단된 지하실에서 키우고, 다른 하나는 열린 정원에서 키우십시오. 몇 주 후 두 식물의 차이를 살펴보십시오. 하나는 건강하고 튼튼할 것이며, 다른 하나는 약하고 연약할 것입니다. 지하실에 있는 식물은 바람과 비로부터 보호받지만, 바로 이 보호가 그 식물이 강하고 튼튼하게 자라는 것을 방해합니다. 반면, 야외에서 자란 식물은 태양의 빛이 주는 양분과 비가 주는 생기를 불어넣는 수분의 도움을 받아, 자연의 역경과 싸우며 강해집니다. 이 광활한 하늘의 그늘 아래에서, 식물은 그 성장과 강인함에 기여하는 온갖 요소와 조건들 덕분에 번성합니다.

진정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단계를 아우르는 경험을 합니다. 이러한 노출이야말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진정으로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무에 붙어닥치는 거센 바람이 나무로 하여금 땅속으로 뿌리를 더 깊게 뻗게 함으로써 점점 더 강해지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나무의

생계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 햇빛이야말로 필수적인 수단이며, 이를 통해 폭풍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또한 삶의 폭풍을 견뎌내며 강해지지만, 죽기까지 신실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햇빛을 통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여정을 시작할 때 보였던 열정은 계속되지 못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스스로를 주의 깊게 살피지 않을 때 우리 각자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매우 생생하게 보여주는 예입니다. 우리의 “첫사랑”을 잃을 가능성, 심지어 위험마저 존재합니다. (요한계시록 2:4). 민수기 33장 6-8절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는 대체로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갑자기 남쪽으로 방향을 틀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선택은 동쪽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면 홍해 북쪽에 있는 작은 개울들에 도달했을 테고, 그곳은 분명히 건너기가 훨씬 쉬웠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목표인 가나안으로 가는 길과도 더 직선적으로 연결되었을 테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행로는 일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파라오의 영토와 자신들 사이의

거리를 늘리는 대신 오히려 줄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약속의 땅과 자신들 사이의 장벽을 더 높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설명은 이 이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록에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 그들을 인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3:21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육신의 관점에서 볼 때 진전되는 방식이 아니라 정반대의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더욱 크게 드러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길을 선택해서는 안 되며, 비록 때로는 그 길이 가장 위험해 보일지라도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로를 인도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우리가 바라는 온전하고 완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잠언 14:12

우리 스스로 길을 선택하게 둔다면, 우리는 본능적인 성향과 선호를 따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육신의 길은 대개 가장 적은 저항을 받는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고, 우리의 믿음도 제대로 드러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편 기슭이 보일 때는 믿음을 갖는 것이 쉽지만, 안개가 짙게 끼어 육신의 시야를 가릴 때야말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발휘해야 합니다.

이 비유를 좀 더 확장해 보자면, 맑고 화창한 날 배를 타고 여행할 때는 선장의 기술과 능력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짙은 안개가 끼어 익숙한 랜드마크들이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선장과 그가 우리를 원하는 안식처로 안전하게 인도해 줄 능력을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선장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불안, 초조함, 우려, 의심, 그리고 근심은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장이 우리를 인도해 주는 동안 믿음으로 곁에 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여정에 얼마나 잘 들어맞는 말인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온전히 신뢰를 두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시편 34:19; 고린도후서 1:9, 10). 바로 그때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이 하나님의 기회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만히 서서” 그분의 구원을 볼 기회를 갖도록 그들을 절박한 상황으로 인도하셨습니다(출애굽기 14:13). 그분은 그들의 행로를 바꾸어 피하히로스로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이곳은 육신의 관점에서 볼 때, 낙담하여 마음이 꺾일 수밖에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여정을 시작했을 때보다 훨씬 더 나쁜 상황에 처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이미 그들을 위해 그토록 많은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불평하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들은 눈앞에 붉은 바다와 뒤에는 이집트 군대만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소홀히 했기에 탈출할 길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14:10-12

아마도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 역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앞뒤로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장애물들만 마주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서는 마치 모든 탈출구가 막힌 것처럼 보이는

홍해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닥쳐올 듯한 파멸 앞에서 두려움에 떨게 될까요? 그렇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위대한 기회를 얻으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우리는 구원이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절실히 필요한 교훈을 배웁니다. 바로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옛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와 구원을 보라.” 출애굽기 14:13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가 허락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망대, 우리의 힘이 되시는 망대가 되십니다. 말 그대로, 숲속에서 길을 잃고 더 이상 나갈 길을 알 수 없을 때, 갑자기 익숙한 망대가 보이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 망대는 위치를 알려주며, 우리가 그곳에 도달하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안전을 의미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힘과 구원의 망대이시며, 우리가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할 때 구원을 가져다주십니다. (시편 61:1-3; 잠언 18:10). 그분 없이는 우리는 절망의 광야에서 희망 없이 길을 잃고 말 것입니다.

성경 기록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그돌과 바다 사이”인 피하히로스로 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2; 민수기 33:7). 미그돌(Migdol)은 히브리어로 ‘ ’ 즉 ‘탑’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의미심장한지요!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난처의 탑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지시하셨습니다. 이 지시에 순종한 결과,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의 탈출을 가로막는 뚫을 수 없는 장벽으로 보였던 바로 그 바다를 통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 앞에 가던 구름은 이제 진영 뒤편으로 자리를 옮겨, 이집트인들에게는 어둠의 기둥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빛의 기둥이 되어, 밤새도록 이집트인들이 그들을 향해 진군하는 것을 막았습니다(출애굽기 14:19-22). 아침이 되자 홍해가 갈라졌고, 그들은 그곳을 지나 안전하게 건너갔습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경험을 통해 믿음이 시험받곤 합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우리에게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2:8,9).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우리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은 매우 필요합니다. 이것은 무기력하거나 무관심한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 대한 차분한 확신을 의미합니다. 이는 믿음에서 비롯된 확신으로,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자보다 우리를 위해 계시는 분이 더 크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31; 요한일서 4:4). 이처럼 하나님께 신뢰를 두고 그분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 그분과 협력할 때, 승리와 구원은 보장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을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실 때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며, 앞으로 나아가라고 지시하실 때 우리는 신뢰하고 순종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행군 명령을 내리셨을 때 움직이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실 때 그렇게 하지 않는 것만큼이나 믿음의 부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에 따라 가만히 있든 앞으로 나아가든, 우리의 마음은 항상 평안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이루신 사역을 깨닫고 안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럴 때에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히브리서 4:9-11). 주님을 위한 우리의 모든 수고와 좁은 길에서의 모든 진전은, 주님과 그분의 약속 안에서 누리는 이 고요하고 신뢰에 찬 안식에 기초를 두고, 그것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 모든 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함께 작용한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줍니다. (로마서 8:28). 그러므로 여정의 끝과 그곳에서 발견하게 될 안식의 가나안을 기대하며,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정의 투쟁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57